

3) 20세기 순교자로 일컬어지는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가 쓴 책 중의 하나가 '제자도'를 가리키는『Nachfolge』(나를 따르라)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값싼 은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교 형식에만 머물고 실제 삶의 무게가 전혀 없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경건 생활에만 치중할 뿐이지 세상 정치와 윤리 문제에 관해서는 담을 쌓고 사는 것입니다. 본회퍼는 히틀러 암살 단체에 가입했다가 체포되어 1945년 4월9일 Flossenbürg 정치범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술 취한 자가 난폭하게 운전하는 버스를 탄 목사는,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술 취한 버스 기사를 강제로라도 끌어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회퍼 목사의 히틀러 암살단 가입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값싼 은혜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의 삶이 이런 값싼 은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4) 그리스도교 역사는 십자가와 피의 역사인 셈입니다. 주류 정치 세력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우상숭배에 맞섰습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이 만든 것들을 절대화하는 세계관입니다. 왕과 장군과 귀족, 상거래와 재물과 예술과 법 등등, 인간 문명의 절대화 말입니다. 이런 문명이 인간의 삶인데, 그걸 부정하라는 말이나,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절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자본주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걸로 여러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자는 이념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으나 자본의 속성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끝없이 성장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끝없이 경쟁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악마화하고 혐오합니다. 당시 로마제국은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퀴리오스, 즉 주(主)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마 6:24)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만이 퀴리오스라고 고백했습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와 제자들은 로마가 끔찍하게 좋아하던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5)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해야 제자로서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미 앞에서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제자를 부르기 전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카이로스, 바실레이아, 메타노이아, 유앙겔리온이 가리키는 성경의 세계를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실제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reality이자 도(道)입니다. 그 안으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4년 1월28일

주현절 후 넷째 주일
세계 교회력 「나」해 9주



오후 햇살이 무척 좋아 기분 좋게 대문도 없는 집을 나섰다. 불어오는 바람도 강한 듯하지만, 불에 와 닿는 느낌은 상쾌하고 부드러웠다. 집에서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좋아하는 대왕참나무 숲이 있고, 그 뒷줄에는 잣나무도 작게 군락을 이루고 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과 겨울 나목들의 선을 음미하며 타박타박 그 숲 옆을 지나는데 때마침 강한 바람이 무리로 달려와 숲을 오롯이 휩쓸고 지나갔다. 싸아아~ 살그랑 찰그랑~ 아름다운 화음이 내 발걸음을 붙잡았다. 바람이 휩쓸고 가는 잣나무 군락에서는 초록 바늘 무수한 잣나무잎 틈 사이사이로 싸아아~ 하고 바람이 헤집으며 내는 힘찬 파도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얼마나 매력적이며 마음을 간질거리게 하는지, 간혹 바람이 부는 날의 산책에서는 대왕참나무 아래서 한참을 그 소리에 빠져 서 있곤 한다.

(김길연 집사가 1월17일 대구성서아카데미에 올린 그림과 글 일부다.)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예배 후 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시편 기자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 19:14)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기도를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 2, 4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세상 모든 사람과 숨 쉬는 다른 생명체와/ 나무와 꽃들을 포함하여/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과 환희로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득한 우주 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사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지금과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국악찬송」 4장 (영광 누리소서) 이은영 곡 ... 다 함께



[알 리 는 말 씀]

* 예배 후에 오늘의 설교를 주제로 찬양, 의견을 나누는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다음주 (2월 4일) 예배 후에 전교우 식사가 있습니다.

* 지난주일(1월 21일) 헌금: 300,000원

- 주일헌금 70,000원 통장헌금 23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국민은행 659002-04-033967 양혜선

* 2024년 1, 2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
2월4일	정용섭 목사	윤혜정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이기령 <시청각실>
2월11일	설 연휴			
2월18일	박재진 목사	윤혜정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김희란 <시청각실>
2월25일	김동호 목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윤혜정 <시청각실>

지난주일(1월21일) 설교 발췌

부름-버림-따름 (막 1:4-20)

1) ‘때’는 그리스어 카이로스(καιρός)의 번역입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대비됩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구원의 때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21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시작한 때(크로노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를 발견한 때(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2) ‘나라’는 그리스어 바실레이아(βασιλεία)의 번역입니다. 뒤에 ‘하나님’을 붙이면 하나님 나라, ‘하늘’을 붙이면 하늘나라(천국)가 됩니다. 바실레이아는 어떤 지역이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바실레이아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미 여기서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봅니다. 봄이 왔는데도 다른 일에만 한눈을 팔느라 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겨울인데도 이미 봄을 미리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131장 (다 나와 찬송 부르세) 1, 2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찬송(주기도) ... 다 함께 (* 악보 별지 참조)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 찬송 131장 (다 나와 찬송 부르세) 3,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주현절 후 넷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십시오. 그 일상에서 '예수의 배타적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죄의 고백 ... 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았으며, 지구에서 나그네로 잠시 머물러야 하는데도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자비의 기도 ... 다 함께

목사: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시 145:9) 자비를 구합니다.

회중: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찬송가를 부른다.)

간절하게 이강민



주 - 여 자 비 를 베 풀 어 주소 서 그리스도여 자 비 를
베 풀 어 주소 서 주 - - - 여 자 - 비 - 를 베 풀 어 주소 서

*사죄 선포

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거 룩 하 - 시 다 거 룩 하 - 시 다 거 룩 하 시 도 - 다
만 군 의 주 하 - 나 님 하 늘 과 땅 - 에 가 - 득 한 그 영 광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주 의 이름 으 로 오 시 는 이 - 여
찬 양 받 으 소 - 서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임성숙

이건용

느린 곳거리

1. 내 가 산 - 을 향 하 여 눈 - 을 드 네
2. 나 의 가 - 는 발 걸 - 음을 걷 - 어 치 시 는 내
3. 야 훼 님 - 은 나 - 를 지 - 키 시 는 분

도 울 나, 숨 쉬 는 오 름 은 가 며 그 언 덕 서
나 의 모 - 든 환 난 을 면 케 하 시 며

천 지 의 신 야 훼 님 나 의 하 나 님
나 의 혜 를 밤 중 에 달 히 보 아 살 피 하 시 고

향 산 도 - 와 주 심 을 내 가 아 네
나 의 그 - 늘 터 영 원 이 허 히 되 돌 아 오 시 네

말씀 예전

설교 전 기도 ... 다 함께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말씀 신명기 18:15-20 ... 최선아 집사

성시 교독 시편 111:1-10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의인들이 모인자리 온정성을 다바쳐서 할렐루야 주님향해 감사찬송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는일 강력하고 놀라워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주님의일 찾아가네
그하신일 살펴보니 찬란하고 영광되며 정의로움 어찌큰지 영원토록 새겨지네
-우리주님 놀라운일 기억나게 만드시니 우리주님 은혜자비 그지없이 크십니다
맺어주신 그계약을 한순간도 잊지않고 주님경외 하는사람 참된양식 주십니다
-주님백성 이땅에서 살아갈길 인도하여 주하나님 크신능력 친히증거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일 정의진리 뿐이오며 주하나님 법을보니 신실하고 확고하네
-주님의법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진리 정의만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자손손 지키라고 계약맺어 주시오니 우리주님 크신이름 두렵고도 거룩하네
-주하나님 우리름이 모든지혜 근본이니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리로다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 8:1-13 ... 최선아 집사

*셋째 말씀 마가복음 1:21-28 ... 최선아 집사

*응답 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J. Stainer, 1870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멘송

설교 예수의 배타적 권위 ... 김동호 목사

설교 후 기도 ... 설교자

찬송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1, 2절 ... 다 함께